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페이스북·블로그 비롯 5대 소셜미디어 운영 주민과의 소통 강화... 진안고원의 숨은 매력 홍보

진안군은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 '진안고원'을 개설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진안고원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동영상 공유 채널인 유튜브(www.youtube.com)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팔로워들과 쌍방향 소통에 힘써온 군은 올해부터 트위터 대신 유튜브 채널을 5대 소셜미디어에 포함시켰다.

유튜브는 온라인 정보 유통 시장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동영상 사이트로 국내 이용자 수가 3,122만명에 달한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한 달에 31억분을 유튜브 영상 시청에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데다 이용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을 넘어 기관, 단체, 기업들도 홍보와 소통 수단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에 나서고 있다.

올 한해 군은 유튜브를 비롯한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여행, 지역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물론 진안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숲과 계곡,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상황은 물론 기상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익적 이벤트를 수시로 열어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진안군 SNS 채널의 소식을 받는 방법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진안군'을 검색한 뒤 페이스북은 '좋아요·팔로잉', 인스타그램 '팔로우', 카카오톡 '소식받기', 트위터 '팔로우', 블로그 '이웃맺기'를 클릭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을 검색한 뒤 채널을 방문해 '구독하기'를 누르면 된다.

최상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10대 전용 공간으로 출발한 유튜브는 이



진안군은 21일 동영상 공유 채널인 유튜브(www.youtube.com)를 개설했다.

제 50, 60대 이상까지 포함한 전 세대가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며 "유튜브를 비롯한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익적이고 팬들에게 도움이 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최소화”

무주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등

무주군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2개 이상의 부서·기관이 연관된 민원(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 민원 주관부서가 직접 나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민원인은 한 번만 방문해 상담·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필요 자료 확인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군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상담예약 제도를 운영(예약 방법: 무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방문, 전화, 팩스, 우편)한다.

또 민원심사관 활동을 강화해 민원 처리와 운영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

하고 민원후견인제(민원인 공급증 해소와 민원처리 상황 안내를 위해 6개 분야 33명의 팀장급 공무원 지정)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의 민원실무협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 10명으로 구성)를 운영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고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민원심사관)은 "모든 민원은 1번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불필요하게 재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부서가 총괄해서 안내와 접수, 처리 진행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장수군은 21일 부군수실에서 신달호 위원장, 장수교육지원청 이영숙 교육지원과장, 지역이동센터 박영자 연합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 해 어린이집 수급 등 장수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용의 특례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달호 위원장은 "영유아 인구수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는 요즘 인구수 증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21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선배 귀농인을 대상으로 11명의 멘토 위촉식을 진행했다.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 가동

진안군, 119 도우미·갈등해결 역할 기대

진안군은 21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에 성공한 선배 귀농인을 대상으로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11명의 멘토 위촉식을 시작으로 귀농귀촌 사업설명회, 전년도 멘토 활동 시 애로사항과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멘토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역 리더나 귀농귀촌 선배들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멘토 6명과 최근 이사한 귀농귀촌인들의 119 도우미 역할과 갈등해결 멘토 역

할을 하는 전문멘토 5명으로 이뤄졌다.

멘토단은 귀농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정보와 주택 및 농지 정보, 작목 선택, 영농기술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을 해 준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멘토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귀농한 새내기 귀농인에게 숙련된 재배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서, 직면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1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김상오(전북 선관위 지도홍보관) 강사를 초빙,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바른 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선거법에 대한 주요내용 교육 및 선거준비에 대한 경찰관의 자세 등 사례별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 향상을 높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밑도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수경찰은 지난 20일 장수 선관위와 합동 간담회를 통해 하이라인 구축, 선거사법 정보교류 등 현장중심 업무처리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장수경찰은 수사·정보·선관위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2기 개강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2기 개강식이 2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수강생, 장수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2기 심화과정은 3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주 과정으로 장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유형 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주민의 도시재생 추진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국내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이론 수업과 병행해 선진지·현장답사, 팀별 토론회 등이 이뤄진다. 또 대학에서 나온 의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추진단과 주민협의체 검토 등 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병선 센터장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숨겨진 자산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 설립

무주군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이 21일 정식 출범했다.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윤여일 부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농·식품가공장업(기초·심화)교육 수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정관승인, 조합원 가입 신청 등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 창립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함께 했다.

윤여일 부군수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생산해 합법적으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크다"며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앞으로 판매·유통될 잼이나 주스 등 가공품이 반딧불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히트상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반디파머스 상표 등록

(2018.9.)을 마친 사과즙과 사과편, 딸기잼, 블루베리잼, 아로니아잼 등 5개 품목(2018.3. 유통표준코드 등록)은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017년 3월 준공)에서 생산 예정으로, 군은 그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공센터 사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가공창업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직화에 힘써왔다.

농업기술센터 감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 활동이 본격화되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HACCP인증 취득과 추가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의 노력들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군에서도 위생관리를 비롯한 작업안전, 생산효율 증대,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무주가 맛,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농산품과 가공품 생산 고장으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